



#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

문의 | 문화체육관광부  
저작권정책과  
장진숙  
02-3704-9478  
jschang@korea.kr

\*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이 내용을 인용,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 
다만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 문화체육관광부  
Ministry of Culture, Sports and Tourism

 한국저작권위원회  
KOREA COPYRIGHT COMMISSION

“  
올바른 저작권 문화  
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 
”

온라인 세상은 공유를 통한 확산을  
기본철학으로 하고 있지만, 원치 않는 나눔을  
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.

그러므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 
존중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의 윤리, 그리고  
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 
지혜가 필요합니다.

# I. 저작권법 개요



## 1. 저작물



### 저작물의 예시

- 어문, 연극, 미술, 건축, 사진, 영상, 도형, 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
- 홈페이지 디자인 · 이미지
- 신문기사 · 기고문 · 칼럼
- 보고서 · 홍보물 · 간행물 · 카달로그
- 인터넷 게시 의견 또는 댓글
- 뉴스 · 드라마 · 영화 · 광고영상 · UCC 등 영상물
- 다만, 신문기사 중 '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'(부고, 인사,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)의 경우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함(저작권법 제7조제5호)
- ※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: 인사발령, 부고기사, 주식시세 등 '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, 언제, 누가, 무엇을,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건사고 기사 등

## 2. 저작자



- 원칙 : 자연인
- 업무상저작물 : 법인 · 단체 등의 기획하에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창작물
- 예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한 보고서 · 홍보물 · 홈페이지 디자인 등의 저작권자는 국가가 되며, 신문기자가 작성한 신문기사 및 업무상 촬영한 사진 등은 신문사가 저작권자가 됨

## 3. 저작권(인격권 & 재산권)과 저작인접권

- 저작인격권 :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
- 저작재산권 :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
- 저작인접권 :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

- 실연자(배우 · 가수 · 연주자 · 지휘자 등), 음반제작자(SM엔터테인먼트 · 양국 기획 등), 방송사업자(KBS · MBC · SBS 등)

※ 저작자에게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부여되므로,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거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며,

-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다거나(외국 저작물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 포함)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또는 업로드하는 경우,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

▶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,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

## 4.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기간



### ■ 권리 발생

-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,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함
- ▶ 즉,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 등록 · 납본 · 기탁 등의 절차 필요 없음

### ■ 저작권 보호기간

- 원칙 :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
- 업무상저작물 : 공표된 때로부터 50년
- ▶ 저저작자 사망 후 50년 또는 업무상 저작물 공표 후 50년이 경과한 경우 보호기간 소멸로 허락 없이 이용 가능

## 5. 침해구제



### ■ 원칙 : 저작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민사 및 형사상 구제 가능

- 민사 구제 : 침해예방, 침해정지, 부당이득반환, 손해배상 등 청구
- 형사 구제 :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(친고죄)

\*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# II. 홈페이지와 저작권

## 1.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 방법

### 인 용

#### ■ 신문기사·기고문·칼럼

- 저작권법에서는 '공표된 저작물의 인용' 규정을 두고 있는바,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 가능

- ① 보도·비평·교육·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
- ② 정당한 범위 내일 것(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·질적으로 주종 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)
- ③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(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,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)

- ▶ 기고문 작성 시 나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문기사 또는 책의 일부분을 인용하는 경우, 언론사가 보도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하여 관련 영상 등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

### CCL마크\*가 부착된 저작물 이용

-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"이용방법 및 조건"의 구체적인 내용, 즉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

① 저작자 표시

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때에는, 저작물의 원저작자나 그 복권물의 권리자의 성명 또는 실명 또는 기타 불특정 공표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 저작자가 저작물을 저작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② 저작자 표시

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성명 또는 실명 또는 기타 불특정 공표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 저작자가 저작물을 저작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③ 저작자 표시

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성명 또는 실명 또는 기타 불특정 공표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 저작자가 저작물을 저작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④ 저작자 표시

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자의 성명 또는 실명 또는 기타 불특정 공표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 저작자가 저작물을 저작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\*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줄임말인 CCL은 '저작물이용허락표시'라는 뜻으로,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제도임

### 자유이용사이트 이용



#### ■ 자유이용사이트

(freeuse.copyright.or.kr)에서는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, 기증된 저작물 등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, 동 사이트에서 검색 후 이용

### 링 크

- 현행법상 '단순링크'와 '직접링크'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'프레임링크', '임베디드링크'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
- 홈페이지에 신문기사 등 게재 시 '단순링크' 및 '직접링크' 방식이 바람직

링 크 방식	예 시	합법여부
단순링크 (simple link)		합법
직접링크 (deep link)		합법
프레임 링크 (frame link)		불법
임베디드 링크 (embed link)		불법

\* 상기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샘플입니다.



## II. 홈페이지와 저작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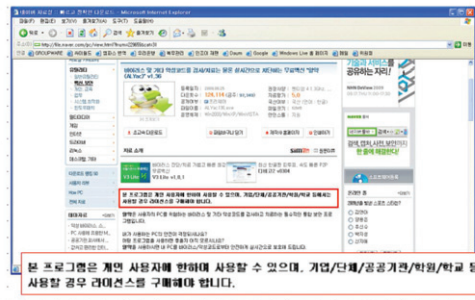


### 이용허락 받기

- 아래와 같이 해당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,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 개별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

분야	단체명	전화번호	홈페이지
음악저작물 (작사, 작곡 등)	한국음악저작권협회	2660-0400	www.komca.or.kr
음악실연자	한국음악실연자 연합회	745-8286	www.fkmp.kr
음반제작자	한국음원제작자협회	711-9731	www.kapp.or.kr
어문저작물 일반	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	508-0440	www.copyrightkorea.or.kr
어문저작물 (복사, 전송)	한국복사전송권협회	2608-2036	www.copycle.or.kr
영화저작물 (전송)	한국영화제작가협회	2267-9983	www.kfpa.net
공공기관의 디지털콘텐츠	한국콘텐츠진흥원	3153-1114	www.kocca.kr
온라인상 뉴스저작물	한국언론재단	2001-7114	www.kpf.or.kr

- 인터넷 포털 등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는 SW(freeware/shareware)의 경우에도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



### 법정허락

- 상당한 노력\*을 기울였어도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하거나 저작재산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찾을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없는 경우, 보상금을 공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(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탁)의 승인을 받아 이용 가능(다만, 외국저작물 제외)

\* 상당한 노력이란?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

-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을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
-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(한국저작권위원회)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등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을 것

※ 법정허락 관련 문의 :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 
(☎ 02-2660-0041~0044)

## II. 홈페이지와 저작권



### 2. 저작물 이용시 주의사항

#### 공익·홍보·비영리 목적의 이용

- 저작권법에서는 공익·홍보·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음
- 따라서 공익·홍보·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

####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신문기사 등의 이용

-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권자로 보고 있으므로,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기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신문기사의 저작권은 신문사로 귀속되므로 사전에 이용허락 필요
- 다만, 각 과에서 제출한 보도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사로 기자의 창작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(제출된 보도자료를 있는 그대로 기사화했거나 기자가 단순 편집만 했다면) 해당 기사의 저작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볼 수 있으므로 허락 없이 이용가능
- 또한, 신문기사에서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, 장관의 발언 부분은 허락 없이 이용가능

#### 일부분의 이용

- 저작물의 일부분(예컨대, 5분짜리 음악을 30초 이용하거나 영화의 특정 장면을 캡처하는 경우)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,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

#### 출처표시로 인한 면책 여부

- 저작권법에서는 출처 표시를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음
- 즉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여 합법적인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, 반드시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

#### 외국저작물의 이용

-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, 외국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함
- 따라서 외국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

#### 홈페이지를 제3의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

- 홈페이지를 제3의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, 해당 홈페이지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므로, 양도를 받고자 할 경우 당초 의뢰 시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
- 또한, 홈페이지 운영자(의뢰자)는 홈페이지의 배경화면 등에 합법적인 저작물만 이용하도록 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주지시키고,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가 지도록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함

####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창작된 저작물의 이용

-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데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해당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
- 정부가 작성한 정부 간행물 또는 보고서 등을 외부에 배포 또는 이용허락 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, 동 간행물 등에 '간행물 작성용'으로만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은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면, 외부 배포 또는 이용허락, 인터넷 게재 등을 위한 용도까지 허락을 받아야 함
- 따라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을 경우 향후 이용행위(직접 이용·외부 허락·인터넷 게재 등)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